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

내가 기억하는 한빛

04 내가 기억하는 한빛 (박영숙 한빛사랑회 총무)
- "한빛사랑회를 통해서 받은 위로"

소아암NGO한빛 소개

06 소아암NGO한빛을 소개합니다.

한빛하우스 리모델링했어요

08 소아암 가족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공간으로

Good Morning Family Event

10 신년잔치-용기와 힘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
12 운동회-격려와 웃음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
14 소아암가족캠프-토닥임과 응원이 함께 한 감사와 행복의 시간
16 그림페스티벌-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의 계절
18 장욱진미술관전시회-꿈을 꾸는 스케치북
20 완치자와의 만남-기린아, 마음을 어루만지다
22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캠페인-완치자와 함께 희망나누기
24 멘토멘티캠프-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6 송년잔치-따듯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던 시간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28 하늘빛교회&이해인후원자-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달력
29 라나쇼-지금 당장 나누는 '라나쇼'
30 고나리자-세상을 위해 필요한 고나리자
32 100주년 기념교회-예배당을 넘어서 하우스까지 흘러온 사랑
33 대우건설-대우건설의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
34 신원의료재단-대한민국 나눔명문기업 신원의료재단
35 ㈜SW헬스케어-세대를 넘어 이어진 나눔
36 도런도런-2025년의 어린이날도 크리스마스도 런런
38 청아장학재단-소아암 환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39 대흥설비㈜-행복한 명절을 함께 즐겨요
40 구르메레브쿠헨-따뜻한 봄날 그리고 포근한 나눔
42 박우람후원자-우람쌤이 보내준 진심의 마음
44 한국오노약품-특별한 날의 기쁨은 나눔으로
45 ㈜엘가닉-소아암환자를 위한 안심할 수 있는 선물
46 연대의대봉사단-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의료키트
47 창천교회 병원봉사회-축복이 담긴 소중한 응원의 마음
48 굿즈 전달식-마음에 마음이 더해져 그림이 작품이 된 시간
50 천사유치원-나누기 위해 지킨 나와의 약속
52 매불쇼-압도적 재미! 압도적인 나눔의 매불쇼

Good Morning My Story

54 하우스이야기(김예은환자 어머니)
- 언젠가 웃으며 우리의 시간을 회상할 수 있기를

56 의료진이야기(한혜리간호사)
- 희망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58 미술치료이야기(이진 미술치료사)
-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시간

60 치료비지원 이야기(허유주환자 어머니)
-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가온 손길

Good Morning Hanbit

62 2025 한빛 NEWS
64 2025 한빛 NEWS
68 2025 결산서
69 2025 후원회원 명단
70 2025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72 후원안내 및 모집
73 정기후원(CMS) 신청서
74 포토에세이
75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2025 Vol 14 | 2025년 3월 25일 발행 | **발행인** 유철주
편집인 송민정 | **발행처** 소아암NGO한빛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창천동 53-60)
TEL 02-3142-0675 | FAX 02-3142-0670
E-MAIL hanbit_2004@naver.com

홈페이지 | 블로그 | 해피빈 해피로그 | 카카오 채널

한빛사랑회를 통해서 받은 위로

2002년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해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야제 참석 이후 아들이 갑자기 열 감기에 걸리면서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며 소리 지르고 아파하는 바람에 우리는 축구를 즐기지 못하고 아픈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열이 잡히는 듯하다가 또 아프기를 반복하더니 아들은 결국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려진 진단에 무서운 마음도 들고, 나 때문인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었기에 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보다는 컸지만 아직 소년의 티도 벗지 못했던 아들은 사춘기 시절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기에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결국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골수이식을 하기 위해 골수 은행에 등록하여 이식 절차를 밟는 중에 결국 이식을 하지 않기로 하고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아들은 정말 대견스럽게 잘 견디고 순간순간을 잘 버텨주었습니다.
한빛사랑회의 임원들이 병원에 와서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고 예배실에서 (제중관 4층)생일 잔치를 1달에 한번씩 해주었습니다. 한빛사랑회의 분들은 환자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 같아 위로가 되었고, 한빛사랑회에 가입 하면서 봄소풍, 마라톤, 가족 여름 캠프 등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에 여러 행사에 가족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린아(소아암완치자모임)에서는 사회복지사, 담당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 나름대로 또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꿈드림,기린아로 나뉨)
그러던 중에 한빛사랑회 총무로 일을 하게 되면서 한나터(지금의 한빛하우스) 설립과도 함께하게 되었고,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봉투 작업과 매달 한나터에서 환자 부모들과 창천교회 여전도회 임원진들이 손수 만드신 음식으로 병원을 돌며 축하하는 생일 잔치도 함께 하게 되면서 병동의 환자와 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한빛사랑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에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는 부모님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름캠프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매번 참여 할 때 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한빛사랑회 분들이 정말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할 뿐 이었습니다.

이제는 '소아암NGO한빛'에서 한빛사랑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아암 환자에게 필요한 후원을 연결하고, 각종 행사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아암 부모 자조 모임에서 시작한 한빛사랑회가 소아암NGO한빛이라는 탄탄한 단체의 일원으로 성장 한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며, 앞으로 한빛의 이름 같이 큰 빛이 되길 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빛사랑회를 아껴주시고 후원하신 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모든 감사한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사랑회 총무
박영숙

소아암 NGO

현재 치료중인 소아암 및 백혈병 환자들과 가족들의 완치와 행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에 등록된 공익단체(NGO) 입니다.

한빛

설립연도

2004년 4월 3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8년 4월 16일)

대표

유철주(소아암NGO한빛 대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연구교수)

미션

백혈병·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공간과 동행 만들기

비전

I 지속가능한 나눔 생태계 조성

II 환자 통합지원 허브 구축과 한빛 드림센터 건립

III 한빛재단 설립 및 해외 네트워크 확장

후원안내 및 기부금영수증

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2) 기부금영수증 : 매년 1월 초에 전년도 개인 후원자님의 후원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합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을 원하시거나 개별적으로 받기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1) 전화번호 : ① 사무실 02-3142-0675
② 하우스관련 문의 010-6504-0675
2) Fax : 02-3142-0670
3) E-mail : hanbit_2004@naver.com

사업안내



한빛사랑하우스 (쉼터)운영



소아암가족 정서지원사업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학업연계 지원사업



소아암환자 미술치료 지원사업



소아암완치자 지원사업

소아암 가족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공간으로

하우스 이용안내

소아암가족의 첫 번 째 집이 되어 준 한빛나눔터(現)한빛하우스)는 2004년 10월 5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차마 집으로 갈 수 없는 소아암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부딪쳐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칸을 얻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당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던 유철주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진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그 편안한 공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닌 결과 만들어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때부터 2025년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며 소아암 가족이면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되어 준 한빛하우스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밖에 없었던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가족들에게 더 쾌적하고, 더 유익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큰 마음이 다시 모여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빛하우스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긴 시간동안 공사가 진행될 텐데 그 사이에 하우스가 필요한 가족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조금씩만 고쳐가며 사용했던 한빛하우스를 보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우스가 변화해야 앞으로 이용할 가족들에게 더 유익할 거란 확신이 들었기에 과감하게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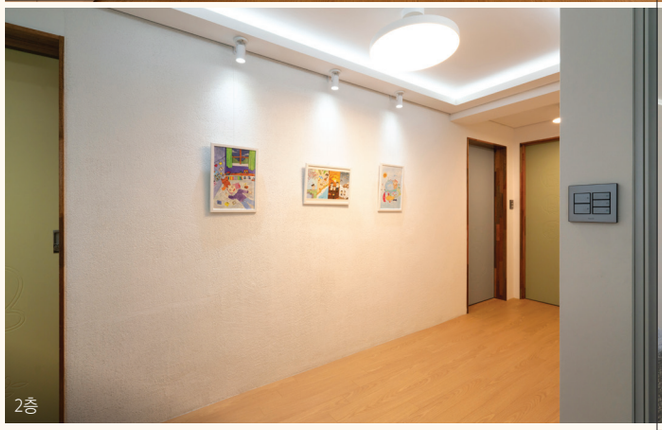
공사기간은 총 6개월이 걸렸는데, 1층과 2층은 내부의 모든 가전, 가구, 집기류를 들어내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3층은 기존에 가장 불편했던 공간인 좁은 부엌을 방 1개와 합


2층


외관


3층


1층 프로그램실


2층


2층


2층


3층


3층


3층

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완성된 한빛하우스는 11월 29일에 정식 오픈식을 거치며 본격적인 NEW 한빛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는 오로지 소아암 치료중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분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치료의 여정에 잠시 쉬어갈 공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가장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이곳의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곳 한빛사랑하우스가 소아암 가족분들께 희망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 여러분의 긴 여정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하우스 이용문의 : 010-6504-0675

용기와 힘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

제5회
최고의 런치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0:30 ~ 13:30

장소
더클래스청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60길 17-5)

참여인원
총110명
(가족 100명, 스텝 등 10명)

프로그램
케이크 꾸미기, 점심식사(뷔페),
행운권추첨, 선물이벤트 및 나눔

특별게스트
백성현 배우(사회자)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최고의 런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올해도 최고의 시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더클래스청담의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은 머무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한껏 더 빛나게 해주었고 다양한 음식들의 예쁜 플레이팅은 눈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맛있는 식사와 디저트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최고의 런치는 백성현 배우님께서 사회자로 함께 해주셨는데 아이들과 가족들이 케이크 만드는 시간에도 테이블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싸인도 해주시며 매 순간순간 진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성현 배우님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 덕분에 더욱 훈훈한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사 이후에 진행한 행운권 추첨과 선물 이벤트 및 증정의 시간은 참여한 환자와 가족분들의 두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3시간 동안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한 오늘,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을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과 의미있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들의 2025년, 기대하던 바를 모두 이루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고의 런치를 진행 할 수 있게 후원 해주신 더클래스청담의 윤종수 대표님과 박선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재능기부로 함께 해주신 배우 백성현님(사회자), 잘앤제니뜨(사진촬영), 메리고라운드 김성실 대표님(케이크 꾸미기)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 후원을 해주신 제주원렌트카(제주렌터카 이용권 3매), 더클래스청담 직원(수제쿠키), 기린아 김영지 부모님(남성용 설화수 스킨로션SET2개), 기린아 김서연(해리포터X카카오프렌즈 콜라보 춘식이 망토담요1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런치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병원에서 종종 뵀던 분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 해서 진정 행복했습니다.

더클래스청담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식사의 메뉴, 맛, 신선한 재료 모두 최고였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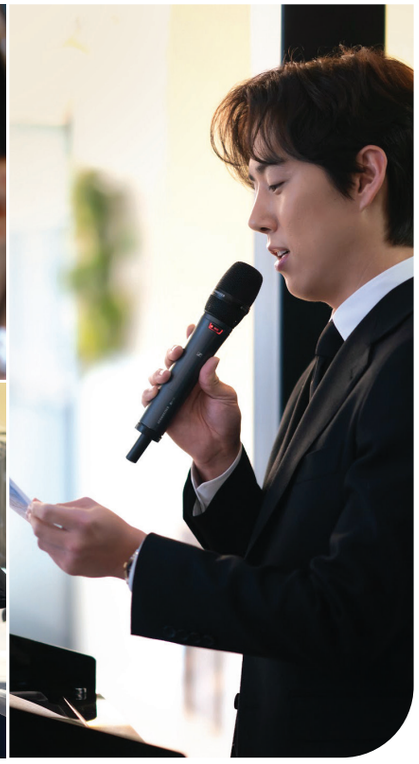
이번에도 너무 즐겁게 참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너무 즐거웠고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고 갑니다.







격려와 웃음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

한빛운동회

일시
2025년 5월 10일(토)
14:00 ~ 18:00

장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4층 대체육관

참여인원
총 145명
(가족 96명, 스텝 49명)

프로그램
게임, 다과나눔, 행운권추첨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빛운동회가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 만남과 동행 최철구 회장, 도럿도런 63명의 러너&후원자, 러너 박균, 더클래스청담, 엘가닉, 서울양천초등학교학부모회,라나쇼&웃음더하기 연예인봉사단 김하양 회장, 연세대학교 사진동아리 연영회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아암NGO한빛에서는 매년 5월마다 운동회가 열립니다.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환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님, 완치자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한빛운동회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환하게 미소 짓고 큰 소리로 웃으며 환호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도 소중하기에, 일상에 특별함이 더해진 이 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빛 운동회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힘든내색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졌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많이 웃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었던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의 아픈 병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신기한 마법을 펼치시는 분들 같습니다.

진단초기에 병원 책자에서 이런 행사 사진을 봤을 때는 우리 아이와는 거리가 먼, 아프게 된 후로는 꿈꿀 수 없는 행사 같아 보였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참여자가 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치료도 열심히 받고, 언젠가는 저도 아이도 받은 것들 이상 베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아이가 다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었는데 이번 운동회에서 신나게 달리는 아이를 보니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뛰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뭉클하고 기특했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 해 주신 소아암NGO한빛&한빛사랑회에 감사드립니다.

존재 자체로 희망이 되어주는 기린아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의료진분들은 사랑입니다. 함께 하신 부모님과 아이들~ 지금보다 더 건강히 내년에 만나기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토닥임과 응원이 함께 한 감사와 행복의 시간

제26회
소아암가족
여름캠프

일시
2025.8.23.(토) ~ 25(월) /
2박3일

장소
스플라스 리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참여인원
총110명
(소아암가족 76명, 23가족 /
스텝+가족 34명)

프로그램
물놀이(워터파크),
가족사진 촬영
(가족 슬로건 현수막 활용),
가족미술프로그램
(가족사진 콜라주),
자유시간(놀이 등),
연령별 프로그램
(환자&형제자매-레크레이션 /
부모님-의료진과의 대화),
도자기페인팅(가족 접시 만들기),
장기자랑과 축제의 밤,
가족미션수행 등

후원
신원의료재단

이번 여름힐링캠프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분들의 97%가 캠프에 대해 '(매우)만족한다', 99%가 '다음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즐거웠고 계속 있고 싶었다.' 고 의견 주셨습니다.





2025년 여름힐링캠프는 신원의료재단의 후원금으로 진행되었으며 호반그룹에서 리조트 내의 프로그램 1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었습니다.
2박3일이 매우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했는데요, 우리 가족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즐거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토닥여 주고 응원해 주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여름캠프를 가능하게 해준 신원의료재단과 참여자들에게 멋진 프로그램을 지원해준 호반그룹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분들과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인 기린아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캠프의 시간을 즐겨준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뜻깊은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힐링캠프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캠프 첫 참여인데 이렇게 즐겁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줄 모르고 참여하는 내내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함께 만난 모든 분들이 너무 반갑고 모든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서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로인해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들과 값진 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 부모님들과 서로 얘기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게 다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하셨는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힐링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동과 감사함을 가득 안고 왔는데요, 일상에 돌아와서 힘들 때면 여기서 느낀 감정을 느끼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5회 2025년
그림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

심사위원 명단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이주옥 학예연구사님,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육혜란 부장님과
위드디자인반 6명의 학생들,
소아암NGO한빛 대표 유철주,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한정우 교수님, 신경민 간호사,
소아암NGO한빛의
이은경 이사님

수상자발표 작품설명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의 계절

우리는 사계절 속에서 여러 추억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는 그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봄, 여름, 가을, 겨울-우리들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그림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그림페스티벌에서 만나본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완치자들의 계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은 단순히 꽃이 피는 계절뿐만 아니라, 희망의 빛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여름은 뜨거운 태양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은 멋진 풍경이 담긴 기억 속 시간으로, 겨울은 겨울이기에 가능한 재미와 신나는 경험, 그리고 멋진 상상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또 사계절을 인생의 싸이클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담긴 사계절은 우리 모두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번 그림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작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불어 모든 작품을 성심성의껏 심사해 주신 12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빛 가족여러분들도 내 마음 속의 계절 이야기를 추억해보고 앞으로의 멋진 일상을 상상해보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듯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성인부<20세>
평범한 인생



초등저학년부<9세>
내 생애 두번째, 눈 오는 날



초등고학년부<11세>
여름 한잔 어때요?



초등저학년부<9세> 새로운 삶의 숨결



중등부<16세>
겨울 그리고 눈사람



초등고학년부<11세>
계절나무



성인부<20세>
사계절 속 추억들



성인부<25세>
파란波瀾



성인부<22세>
멋진 봄

2025 그림페스티벌 대상 김혜빈 작가의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평범한인생'을 그린 김혜빈입니다.
먼저 제 그림을 예쁘게 봐주시고 대상으로 선정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린 평범한 인생은 주어졌던 주제와 같이 사계절은 늘 우리곁에 있지만 우리와 같이 아픈 사람들과 가족들에겐 늘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항상 당연한 듯이 있어서 나에게도 늘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몸이 아프고 나니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기다렸던 대학생활을 시작 할 수 있을까? 여름에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행을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가을에는? 겨울에는? 그리고 1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처음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할 때는 당장 내일도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텐데. 이 병이 진짜로 다 나을수나 있는 병인가?" 하루가 지날수록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괴감도 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점차 익숙해질 무렵 입원 중에 그림페스티벌 공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손이 조금 불편했지만 조금 기운내서 좋아했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마음먹고 오랜만에 펜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병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어서 내심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리는 동안 가족들과 어떻게 그리는게 좋을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를 그려서 가족들끼리 투표도 하면서 그 시간 동안만큼은 예전에 학교 다녔을때, 아프지 않았을때로 돌아간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와 저희 가족에겐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는 치료할 날이 많이 남았지만 병이 깨끗이 나아져서 아프지 않았을 때로 돌아간다면 하루를 더 값지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회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전시회

꿈을 꾸는 스케치북

주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들의 계절”

전시장소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1층
아카이브

전시기간
2025. 7. 29(화) ~ 8. 24(일)

접수 작품 수
총16점
- 2025년 주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들의 계절’ 14작품
- 2022년 소아암NGO한빛 15주년 기념 ‘꽃’ 1작품
- 2024년 한빛사랑하우스 개소 20주년 기념 ‘집’ 1작품

관람인원
총6,672명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의 인연은 연세암병원 병원학교를 통한 다양한 미술키트 나눔으로 시작하여 2021년부터는 소아암NGO 한빛의 ‘그림페스티벌-꿈을 꾸는 스케치북’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2025년에 ‘소아암 아동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MOU의 목적은 소아암 아동들의 정서지원을 위한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보다 높이며 예술로 인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이었는데, 그 일환으로 올해 미술관에서의 그림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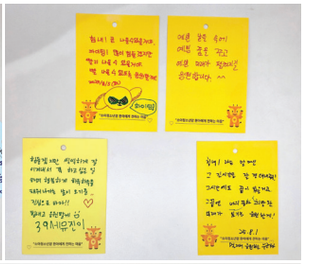




이계영 관장님과 이주옥 학예연구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게 되었고 전시공간을 채워나가는 동안 설렘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소아암NGO한빛에서 진행한 ‘그림페스티벌-꿈을 꾸는 스케치북’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제작된 굿즈를 나누고 소아암인식개선 영상을 상영하고 응원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전시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가 작가들과 관람객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시회 관람 소감 중에서

덕분에 너무 아름답고 여유로운 좋은 공간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도 저도 힐링을 마음껏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꾸준히 이어지고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와의
만남

기린아, 마음을 어루만지다

상반기 완치자와의 만남

일시
2025. 2. 15(토) 16:00 ~ 19:00

참여인원
총 32명
- 가족 : 15명(총7가족)
- 완치자 : 12명
- 의료진, 소아암NGO한빛 : 5명

하반기 완치자와의 만남

일시
2025. 7. 19(토) 11:00 ~ 14:30

참여인원
총 43명
- 가족 : 20명(총10가족)
- 완치자 및 가족 : 18명
- 의료진, 소아암NGO한빛 : 5명









2025년의 완치자와의 만남은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 완치자가 함께 만나서 궁금한 점, 완치자의 경험 등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욱 친숙하게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총 2회로 진행된 완치자와의 만남은 상반기에는 2월 15일 세계 소아암의 날에 진행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하게 되어 참여대상을 완치자의 보호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암을 이겨내고 현재 독일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며 성인리그 계약을 앞두고 있는(25년 7월 시점) 박찬빈 선수가 함께 하여 자신의 어려웠던 순간과 이를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며 싸인볼을 직접 전해주는 시간도 갖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기린아, 마음을 어루만지다' 의 행사명처럼 완치자와의 만남이 현재 치료중인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많은 위로가 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앞으로의 치료와 완치를 향한 시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완치자와의 만남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나누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응원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번 만남을 통해 얻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얻은 것이 많아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급하게만 생각했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이와 대화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건강해져서 입원했던 친구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힘든 치료를 마치고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훌륭하게 성장하여 살아가는 완치자들을 만나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근심, 걱정이 조금이나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지내는 요즘 가끔씩 재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데 완치자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나니 '우리아이도 꼭 저렇게 건강히 자랄수있겠구나' 하며 걱정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해져서 우리아이도 꿈을 이루고 멋진 기린아처럼 또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수있길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6회 2025년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

일시
2025. 10. 18(토) ~ 19(일)
1박2일

장소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

내용
그림전시회, 영상상영,
희망메시지 작성, 룰렛돌리기,
굿즈나눔 및 판매 등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완치자와 함께 희망나누기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고자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포츠조선에서 주최하는 하늘길페스티벌 행사 일정에 맞추어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 잔디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하늘길페스티벌에 참여한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 날씨로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의 진행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작성하여 응원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고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작품으로 제작된 굿즈를 판매하고 수익금은 소아암NGO한빛에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암의 인식개선을 위해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와 완치자 자조모임인 기린아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5
멘토멘티캠프

일시
2025. 10. 18(토) ~ 19(일)
1박2일

장소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

인원
총32명
(환자, 완치자, 형제자매,
의료진 등)

내용
하늘길 트레킹, 양궁 체험 및 게임,
자유시간 등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연세암병원과 소아암NGO한빛은 매년 가을, 소아청소년 암치료 생존자 자립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 암 완치자 자조모임 기린아와 함께 1박 2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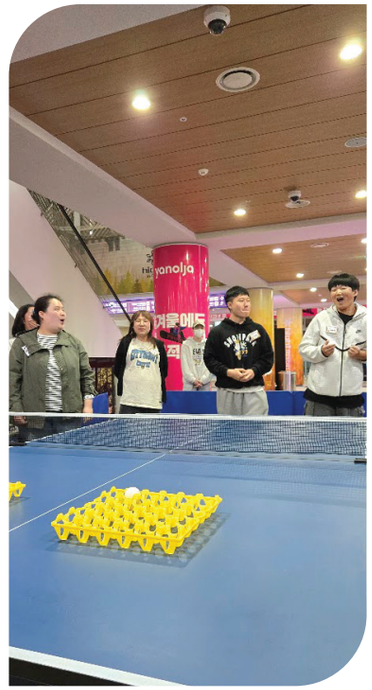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치료 중인 중학생 이상의 환자와 형제자매가 서로 공감대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2025년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제이씨지, 스포츠조선, 하이원리조트의 후원을 받아서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스포츠조선에서 주최한 하늘길페스티벌에 참여하며 보다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료 중이라는 힘든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연과 함께 마음의 힐링을 얻었고 완치자와 함께 걸으며 나눈 대화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전한 상황 속에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었고 다양한 조별게임과 여러 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단합대회를 가능하게 해준 제이씨지, 스포츠조선과 하이원리조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브란스병원 김선희 간호사 선생님과 여러 의료진 선생님(교수님, 간호사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신 환자와 완치자분들, 형제자매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 세브란스병원 완치자 자조모임인 기린아꿈드림을 늘 응원합니다.



참여자의 소감 중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좋은 기회였고 다양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일상에서 받았던 답답함을 뚫어주는 캠프였습니다.

환자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 참석 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던 경험이 앞으로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 트레킹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멘토멘티라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 남은 치료 기간 더 힘낼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
송년잔치

일시
2025.12.18(목) 13:20 ~ 16:00

장소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

인원
약 150여명

내용
포토존, 그림전시,
소원카드 작성, 공연관람,
선물나눔 등

따듯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던 시간

2025년 한 해 동안 소아청소년암 치료의 시간을 잘 이겨내 주고 함께 격려해 준 우리 모두를 위해 '송년잔치'라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세암병원 126병동에 입원중이거나 소아혈액종양과 외래로 방문한 환자와 가족, 의료진, 후원자분들이 함께 한 올 해의 송년잔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었고 특히, 126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는데 의료진선생님들과 간호사선생님들도 함께 하여 아이들의 컨디션 체크까지 해주신 덕분에 다함께 따듯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단체 : 후원물품)

- SBS 김윤상 아나운서 : 송년잔치 사회
- 누르프렌즈 : 오가닉 토리인형
- 도런도런 : 파쉬 보온 물주머니
- 보루네오가방 : 여행용캐리어
- 스프링샤인 : ESG메모리키트
- 애드벌룬컴퍼니 : 풍선장식 (포토존&행사장)
- (주)엘가닉 : 캔케어제품 비누
- 예림디자인고등학교 : 굿즈양말
- 창천교회 병원봉사팀 : 송년잔치를 위한 후원금
- 한국소아암재단 : 접이식 롤링 토트백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공연과 샌드아트, 넌버벌 서커스 챌린지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선물 나눔은 즐거움을 주었고, 전시되어 있는 아이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소원카드의 내용을 나누며 응원한 시간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포토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게 해주었고 예쁜 사진으로의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자로 함께 해주신 SBS 김윤상 아나운서의 진행 덕분에 더 매끄러운 행사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아암NGO한빛과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느꼈고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마련 해줄 수 있도록 더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송년잔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즐거움과 감동이 함께 한 의미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년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겨울의 시간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

하늘빛교회&이해인
후원자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달력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늘빛교회(담임목사 나두찬)에서 소아암환자들을 위한 귀한 선물과 함께 한빛하우스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이해인후원자는 청년이면서 일러스트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한 달력을 교회내에서 판매를 하여 판매된 그 수익금 전체를 소아암환자를 위해 후원해 준 것입니다.

특히 이해인후원자 본인도 암투병 중에 있는 중에도 재능기부를 통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작품활동을 펼쳤고, 그렇게 완성된 달력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1월의 어느 날 하늘빛교회의 나두찬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빛하우스를 방문한 이해인후원자님은 마음만큼 고운 미소와 함께 하우스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그 따스한 마음이 소아암환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한빛하우스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달력도 선물로 주셔서 하우스의 각 방마다 놓았는데, 달력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위로와 따스한 마음이 온 방안에 가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멋진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이해인 후원자님과 그 달력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구매해 주신 하늘빛교회의 나두찬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빛사랑하우스도 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라잇나우쇼

지금 당장 나누는 '라나쇼'

여러분은 '라나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나쇼는 곽동근 강사와 심상범 마술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라나는 '라이트 나우(right now, 지금 당장)'의 줄임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기부와 나눔에 지금 당장 적극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발전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한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라나쇼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참가비로 라면 5개를 받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렇게 모인 참가비와 웃음더하기 연예인 봉사단 김하얀 회장님께서 대표로 있는 에이치알디아카데미에서 추가로 후원을 해주셔서 컵라면 1004개를 소아암가족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3월 28일 아쿠아픽 본사 코이노니아홀에서 진행된 '라나쇼 시즌2' 여덟 번째 모임에 소아암NGO한빛을 초대해 주시고, 후원자로 선정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공연과 너무 의미있었던 강의까지 들었는데 라면 후원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원받은 라면은 하우스에 머무는 가족분들과 5월에 진행된 한빛 운동회에 참석한 소아암가족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았던 특별했던 기부쇼 라나쇼에 초대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라나쇼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원

해피빈재단과
'고나리자'

세상을 위해 필요한 고나리자



JTBC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였던 강지영아나운서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였던 '고나리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나리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깊이 파헤쳐서 제대로 되짚어 본다는 용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유튜브에서 방영된 '고나리자'프로그램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점은 없는지, 정말 말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고나리자에서 해피빈재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해피빈재단의 후원을 받는 단체 중 한 곳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 단체로 소아암 NGO한빛이 선정되어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피빈재단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촬영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촬영날 당일 강지영 아나운서를 처음 보았는데요, 아름답고도 그 당당함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한빛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하우스의 필요성, 역할 등을 말하였는데요, 설명에 부족함은 없는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은 없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진행된 촬영은 어느새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해피빈재단을 통해 매달마다 후원받은 금액과 실제 해피빈 모금함에서 모아진 후원금이 일치함을 증명하고, 지출 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도 보여드리며, 한빛의 투명성도 한번 더 증명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후원을 받는 것은 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받는 것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후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소아암환자와 가족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후원

100주년기념교회

예배당을 넘어서 하우스까지 흘러온 사랑



여러분은 양화진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1800년대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제물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갑신정변(1884) 당시 민영익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서양 의사 알렌(Horace Newton Allen) 덕분에 선교사들과 왕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고, 이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은 서구의 의료와 교육, 자선 사업을 실천하며 간접적인 선교를 모색하였던 것입니다.

알렌에 이어서 광혜원의 원장이 된 헤론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 자신도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4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헤론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할지 거론되던 중 당시 유일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까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양화진이 매장지로 정해지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양화진의 참된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2005년 7월 10일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에서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하지 않고, 교회가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세상의 따스함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나눔이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귀한 나눔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매월 마다 500,000원의 정기 후원을 받게 되었고, 이 덕분에 한빛사랑하우스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모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마음이 하우스의 곳곳에 전해져 소아암가족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 한빛사랑하우스도 소아암가족분들께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

대우건설

대우건설의 함께으쓱 (ESG) 기부챌린지

대한민국의 대표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는 "2025년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를 통해 걸음 수를 모아서 기부도, 건강도, 탄소중립 실천도 할 수 있는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챌린지 기간(1달간)동안 참여자 전체 누적 걸음 수 4억보 이상을 달성할 시 25,000,000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목표치를 초과할 시에는 총 50,000,000원을 확대하여 기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걷기를 실천한 결과 공동 누적 걸음 수 500,068,964보를 달성하여 이번 챌린지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내에서 기부처 공모를 통해 함께 이뤄 낸 후원금을 어떤 기관에 전달하면 좋을지를 선정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빛하우스를 알고 있는 오래전 연세대학교 재학시절 자원봉사를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대우건설의 안욱진 후원자가 계셨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대우건설에서 이러한 챌린지와 기부 공모전을 열게 되자 주저없이 소아암NGO한빛을 추천해 주셨고,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어 이 귀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으쓱(EGS)챌린지는 5월에 이어 11월에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대우건설의 임직원 2,960명이 참여하여 누적 걸음 수 803,819,855보를 달성하여 한번 더 챌린지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만 5월에 이어 11월까지 감사하게도 두 번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과 땀방울로 만들어진 대우건설의 기금은 소아암 및 백혈병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쉼터 운영 및 정서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눔을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고 참여해 준 대우건설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과 추천해 주신 안욱진 후원자께도 감사드리며, 소아암NGO한빛도 소아암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의)신원의료재단

대한민국 나눔명문기업 신원의료재단

신원의료재단은 2023년부터 소아암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자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꾸준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신원의료재단에서 5000만원이라는 큰 후원과 그보다 더 커다란 따뜻한 마음을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소아암가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신원의료재단에서 믿고 지원해 주신 후원 덕분에 여름마다 소아암가족들의 삶의 휴식과 힐링이 되어준 여름캠프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소아암 투병 이후 꿈도 꾸지 못했던 물놀이와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원의료재단의 이병미 이사장님은 소아암가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후원금 1500만원을 더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한빛사랑하우스 생필품 구입,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완치자의 모임 등을 지원하며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아암환자뿐만 아니라 소아암 가족, 그리고 소아암 완치자들의 모임까지 지원하여 완치자들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든든한 멘토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암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소아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지 않고 이해와 수용안에서 더 따스히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원의료재단은 평소에도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나눔명문기업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신원의료재단의 모든 임직원분들과 이병미 이사장님께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바램이 가득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게 나누어주신 마음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어 큰 위로와 힐링이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소아암NGO한빛도 소아암가족들에게 늘 따뜻한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

(주)SW헬스케어

세대를 넘어 이어진 나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신원의료재단이 설립한 자회사 ㈜SW헬스케어 이여준 이사님은 신원의료재단 이병미 이사장님의 아들로, 경기도 최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자(母子) 아니 회원'이 된 나눔실천 기업가입니다.

신원의료재단으로부터 시작된 인연이 ㈜SW헬스케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2025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성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SW헬스케어는 2020년 9월 신원의료재단과 협력하여 설립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초기 분자진단, 면역진단 분야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기타 의료기기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념 중 책임 이념이 있는데요, "기업의 핵심가치,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나눔을 쉬지 않고 있는 이여준 이사님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후원금 30,000,000원 덕분에 6월부터 시작된 한빛하우스의 리모델링 공사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소아암가족의 우리 집이 되어 준 한빛하우스가 시설이 노후되고, 구조적인 문제로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세 달이 넘게 이어진 공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여준 이사님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그 나눔의 마음이 우리 한빛하우스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소아암친구들과 가족분들에게도 그 따스한 마음이 힘찬 응원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귀한 후원을 보내주신 ㈜SW헬스케어 이여준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도런도런

2025년의 어린이날도 크리스마스도 런런!
도런도런과 함께~!



도런도런
2025년 활동영상

도런도런은 러닝(Run)을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기부(Donation)로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는 단체명입니다.
2023년 겨울, 김수빈&문혜지 후원자님과 러닝 크루들의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을 위한 기부런을 시작으로 소아암NGO한빛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세암병원에서 치료 중 또는 한빛사랑하우스를 이용 중인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위해 선물과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니다.
특히, 올해는 문혜지 후원자님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 소식과 함께 였기에 좀 더 특별했던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의 기부였습니다.
2025년 어린이날 선물을 전해주려고 한빛운동회 때 함께 참여 하여 사진과 영상도 촬영해 주고 아이들에게 카피바라 인형 손목 밴드를 나누어주었는데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선물을 받고 손목에 차고,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들은 링거폴대에도 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진행하는 송년잔치 때 서암강당에 방문하여 치료중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파쉬)보온주머니를 선물 해주신 덕분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부런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영상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서 더 훈훈한 송년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어떤 선물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할까'를 늘 고민하시고 정성스레 준비해 주시는 도런도런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앞으로의 도런도런을 늘 응원하며, 기부런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재)청아장학재단

소아암 환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아장학재단

지원형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자수
일시금	1,000,000원x1회	대학생	7명
정기지원	300,000원x12회	중고등학생	4명
지원합계	21,400,000 원		

(재)청아장학재단은 2007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2008년부터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후원을 보내주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소아암환자가 힘든 치료중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지원의 폭을 넓혀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청아장학재단은 소아암 투병을 이겨낸 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환자들의 삶에 집중하며 투병을 위해 학업에서 잠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어려움이 이 아이들이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뜻깊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 대학생을 포함하여 7명의 대학생과 병원을 벗어나 학교로 돌아온 중,고등학생 4명이 자신의 꿈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 오랜 시간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대학 합격을 한 OO이에게
>
> 큰 축하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
> 투병 과정도 힘들었지만 중단된 학업을 다시 이어가는 학교 생활도
>
>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 정말 고맙습니다.
>
> -2025 청아장학재단 선정자 어머니의 감사인사-

후원

대흥설비(주)

행복한 명절을 함께 즐겨요

올해 1월 설날과 9월 추석 명절에도 대흥설비㈜에서 소아암가족을 위한 풍성한 명절선물세트가 도착했습니다.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감사한 나눔으로 2022년부터 일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에 대흥설비㈜에서 데우기만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국세트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면서 기다리고 지내는 명절에도 병원을 오가며 같은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명절의 기쁨을 나누고자 해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가족들이 받았을 때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심하며 선택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그런지 명절마다 선물을 받으시는 가족분들께서 모두 환한 미소로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에 머무는 가족분들께도 전해 드렸는데요, 한끼 식사를 너무 간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선물이기에 가족분들 모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선물이 받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깊이 고민하여 보내준 선물임을 알기에 전해 드리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명절은 그 어느때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명절마다 보내주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올해도 소아암 가족분들의 명절이 더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보내주신 대흥설비㈜의 이기조 대표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후원

나카가와 히데코 와
[구르메 레브쿠헨] 바자회 일동

따뜻한 봄날
그리고 포근한 나눔





여러분께서는 “구르메 레브쿠헨(Gourmet Lebkuchen)”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본 태생의 귀화 한국인으로 현재 연희동에서 구르메 레브쿠헨이라는 요리교실을 운영중인 작가이자 요리사인 나카가와 히데코님이 현재 운영중인 요리교실의 이름입니다.
‘Gourmet’는 프랑스어로 ‘미식가·식도락가’라는 의미이고, ‘Lebkuchen’은 세상에 다양한 맛과 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준 독일 과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인생을 여러 사람과 함께 파티하듯이 웃고 즐기며 요리를 배우고 인생을 나누는 그녀의 요리교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2025년 봄날인 5월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요리 수강생들과 함께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선한 나눔의 결실을 만들어 보고자 바자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히데코님의 제자중 한 분이 소아암 NGO한빛을 알고 있었는데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을 소아암환자들을 돕기 위해 이 곳에 후원을 하면 어떨지 제안을 해주어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자회날 만나본 나카가와 히데코님과 그곳을 가득 메우고 계셨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당에 피어 있는 꽃과 같이 세상 환한 미소가 모두의 얼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판매물품들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요리교실인 만큼 맛있는 요리도 있었고,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앞치마와 멋진 티셔츠, 풍미가 가득했던 와인과 음식









을 더 맛있게 보여줄 도자기 그릇들까지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자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품을 기꺼이 내어 놓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모두 행복하고 환한 모습으로 바자회조차 파티처럼 즐기는 그 모습에서 따뜻한 봄날에 생겨난 포근한 나눔을 느낄 수 있어 덩달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했고, 행복했던 그날의 포근한 나눔이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소아암친구들과 가족분들께도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귀한 나눔을 보내주신 구르메 레브쿠헨의 나카가와 히데코님과 바자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후원

박우람 후원자
(우람보컬스튜디오 대표)

우람쌤이 보내준 진심의 마음

우람보컬스튜디오
블로그



안녕하세요?
우람쌤입니다.
저는 현재 합정에서 보컬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아암NGO 한빛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소아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한 지는 벌써 4년이 되네요. 제가 어느 곳에 후원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소아암NGO한빛을 한 지인을 통해 소개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곳 한빛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아암 아이들을 돌보던 한혜리 간호사입니다.
그때의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올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빛에게서 제 인생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빛에 후원을 하기 이전부터 나눔을 했었는데요, 벌써 그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했던 나눔은 연탄 나눔, 결식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 저 혼자만의 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는 후원이 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더 커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후원이라는건 진행할수록 제 스스로가 더 구체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저 후원금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후원한 아이가 완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제가 후원한 아이들이 하루하루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올 때 힘들지는 않았는지, 옷을 춥게 입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진짜 후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나눔을 이어 가고 싶습니다.

아동 후원, 어르신 김장 김치 지원, 보육원 어린이 뮤지컬 지원 등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어서 한혜리 선생님께 물어본 것이 지금의 인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후원금은 1년 동안 제 보컬 수업 상담 비용과 원데이클래스, 단체 보컬 수업으로 생긴 수익금 전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특별한 날의 기쁨은 나눔으로



소아암NGO한빛에는 올해에도 12월의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12월 마다 소아암환자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후원금과 함께 선물을 전달해 주는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바로 산타입니다.
올해에도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각종 가전제품(냉장고, 밥솥, 직화오븐 등) 및 식탁,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특별히 소아암친구들을 위해서는 따뜻한 담요도 하나씩 구입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특별한 선물은 한국오노약품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민하고, 발로 뛰며 구입해서 보내준 선물입니다. 창립기념일의 감사와 기쁨을 늘 나눔의 기쁨으로 전하는 한국오노약품에서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 싶어, 임직원 분들이 조를 나누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보호자를 위한 선물을 각각 구입하셔서 한아름 선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아이의 옆을 지키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정성과 마음이 한 가득인 선물들을 보고 있으니 괜시리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물에 가득 담긴 그 마음이 연세암병원으로 전달되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소아암 아이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깜짝 선물이 되어 아이들을 웃음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깊게 배려된 선물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회사의 특별한 창립기념일을 늘 나누는 기쁨으로 전 임직원이 함께 하는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따뜻한 나눔에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

(주)엘가닉

소아암환자를 위한 안심할 수 있는 선물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정성으로 담아 사람과 자연에 유익한 것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엘가닉에서는 매달마다 한빛사랑하우스를 이용하는 소아암가족분들을 위해 여러 제품들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엘가닉에서 만든 제품은 암환자 전용제품으로 그 종류만 수십가지에 이릅니다.
치약, 크림, 클렌징, 샴푸, 바디클렌저, 토너, 주방세제 등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매달마다 조금씩 다른 여러 품목들을 후원으로 보내주셔서 하우스의 모든 방과 욕실에는 늘 ㈜엘가닉의 제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암환자를 위해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에 하우스에 오신 가족분들께서도 안심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달 하우스에 보내준 후원물품 외에도 5월에 진행된 한빛운동회와 12월에 진행된 송년잔치에도 ㈜엘가닉 제품인 캔비누 150개씩을 후원해 주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소아암가족분들께 뜻깊은 선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엘가닉에서는 소아암환자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늘 적극적으로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빛사랑하우스에 가득 찬 ㈜엘가닉의 따뜻하고 진심어린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

연대의대봉사단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의료키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비단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뜻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어린이병원봉사단도 그러한 청년들이 모여 의미있는 의료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단체에서 제작한 학습지 의료 키트를 직접 대면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같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직접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알기 쉬운 의료지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지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의료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게 된 형식이 2020년부터 소아암NGO 한빛과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직접 번역까지 진행해서 병원에 있는 소아암환자 모두가 이 키트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의료키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다해 만든 의료키트가 아이들에게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연대의대봉사단의 모습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의료키트를 지난 9월에 전달받아 연세암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아암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설명을 드렸고, 한빛사랑하우스에 오는 소아암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귀한 나눔을 실천해 준 봉사단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창천교회 병원봉사회

축복이 담긴 소중한 응원의 마음



신촌에 위치한 창천교회는 올해로 설립 119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촌에는 몇 개의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창천교회입니다. 오랜시간 그 자리에 머물며 신촌지역과 서대문구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창천교회에서는 소아암 아이들에 대한 응원과 헌신의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노력봉사와 후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청년부에서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한빛하우스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가족분들이 지내는 하우스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고, 여름캠프와 송년잔치마다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행사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창천교회안에 있는 여러 모임들 중 한 모임인 병원봉사회에서 오랫동안 소아암 아이들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치료비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특별히 치료비지원을 위한 후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이 담긴 귀한 후원금이 소아암 치료중인 아이에게 전달되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빛하우스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이후 처음 하우스를 방문해 주신 손님이셨는데요, 앞으로도 이곳 한빛하우스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와 가족분들께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귀한 축복과 사랑을 보내주신 창천교회 병원봉사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능기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굿즈 전달식

마음에 마음이 더해져 그림이 작품이 된 시간

[재능기부 유형]
디자인 작업을 통한 굿즈(2026 다이어리) 제작

[재능기부 참여자]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위드디자인반 지도교사 육혜란, 6명의 학생들
-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콘텐츠디자인과 곽사라, 김나영, 변채원, 조수빈, 함미승
-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주희

[굿즈 전달식 일시]
2025. 12. 10 (수) 10:00-11:00

[굿즈 전달식 장소]
예림디자인고등학교 5층 Books_자작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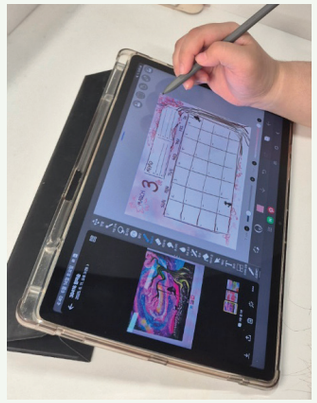


소아암NGO한빛에서 진행한 '그림 페스티벌-꿈을 꾸는 스케치북'에 접수된 그림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위드디자인반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완치자의 마음이 담긴 그림에 위드디자인반 학생들의 마음이 더해져 2026년의 다이어리가 제작 되었고 소아암NGO한빛의 후원자 등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원학습공동체 블랙홀의 후원으로 예쁜 양말도 제작되어 소아암NGO 한빛 송년잔치 때 참여한 많은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늘 응원을 보내 주시는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정효경 교장선생님과 진승혜 교감선생님, 위드디자인반의 재능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지도교사 육혜란 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정성껏 굿즈제작에 참여 해준 학생들과 멋진 작품을 접수 해 준 소아암환자 작가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아들의 작품으로 굿즈를 만든다는게 단순한 작업을 넘어서
매우 가치있고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헤쳐나가다보니
괜찮았고 저희의 재능으로 완성된 굿즈가 환자와 후원자분들께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의미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활동이 앞으로도 있다면 직접 나서서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경험 해보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라고 느꼈고 무엇보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저희만의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는게 단순히 예쁜 결과물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을 할 때 결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도
더 섬세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후원

천사유치원

나누기 위해 지킨 나와의 약속





서울 양재동에는 어여쁜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천사유치원의 나눔은 추운 겨울에도 너무 뜨거워서 겨울의 추위를 한 순간에 잊게해 주었습니다.

천사유치원의 장태옥원장님께서는 바른 교육과 바른 인성 그리고 바른 나눔의 마음까지 알려주시면서 천사유치원의 친구들이 어린나이지만 벌써 나눔의 행복을 알 수 있는 값진 기회를 매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천사유치원의 아이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자신과의 약속을 정합니다.



"엄마를 도와주고, 밥 잘 먹기"
"양치 잘하기, 밥 골고루 먹기"
"TV를 정해진 시간까지 봐요"
"짜증, 화내지 않고 예쁘게 말하기"

아이들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의 결실은 부모님과 함께 모은 후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모은 후원금을 소중히 안고 유치원에 모여 나눔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유치원의 선생님들도 함께 후원에 동참하며 천사유치원의 나눔축제가 완성이 됩니다.



나눔의 마음은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앗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들에게 행복, 기쁨, 선함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된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눔은 사실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꺼이 도와주고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행복이 어느새 내 마음 가득 퍼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유치원의 나눔천사들이 지금처럼 추운 겨울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

매불쇼

압도적 재미!
압도적인 나눔의 매불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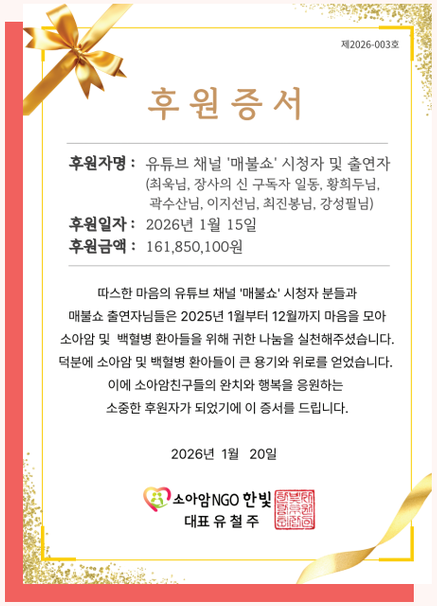
2025년이 끝나가던 12월의 어느날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팟빵 '매불쇼'에서 1년동안 시청자분들이 모아주신 후원금과 출연자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기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투표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진행된 투표 기간 동안 12만명의 시청자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32%의 투표를 받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2위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26일에 송민정 사무국장이 '매불쇼' 생방송에 참석하여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아주신 너무 귀한 마음인 것을 알기에 소아암 투병중인 환자들과 가족분들께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달해야겠다는 깊은 다짐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이번에 후원받은 금액은 총 161,850,100원으로 2025년 1월~11월까지 '매불쇼' 시청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슈퍼챗 전액인 175,625,347원과 매불쇼 출연자분들의 기부까지 더하여졌는데요, 최욱님 12,000,000원, 장사의 신 구독자 일동 200,000,000원, 황희두님 10,000,000원, 곽수산님 3,000,000원, 이지선님 2,000,000원, 최진봉님 1,000,000원, 강성필님 1,000,000원 총 404,625,347원의 모금액 중 투표기관 2위에게 후원되는 40%의 후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후원은 해피빈재단의 추천으로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늘 소아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해피빈재단의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매불쇼'와 함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제2026-003호

후원증서

후원자명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시청자 및 출연자 (최욱님, 장사의 신 구독자 일동, 황희두님, 곽수산님, 이지선님, 최진봉님, 강성필님)
후원일자 : 2026년 1월 15일
후원금액 : 161,850,100원

따스한 마음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시청자 분들과 매불쇼 출연자님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음을 모아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들이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에 소아암친구들의 완치와 행복을 응원하는 소중한 후원자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20일

소아암NGO 한빛
대표 유 철 주



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후원해 주신 최욱님, 장사의신 은현장 대표님과 구독자 일동분들, 황희두님, 곽수산님, 이지선님, 최진봉님, 강성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 나눔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2026년 1년동안 소아암치료중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지원과 소아암가족들이 머무는 쉼터의 운영비를 위해 사용하여 소아암치료라는 길고 고된 길을 가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만남은 늘 따스한 온기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그 어느 해 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빛하우스
이용자 이야기
김예은님 어머니



언젠가 웃으며 우리의 시간을 회상할 수 있기를

2025년 9월 5일부터 우리가족에게는 폭풍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은이는 고3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극심한 두통으로 CT를 찍게 되었는데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의 원인을 해결하자는 목표로 시작된 치료는 결국 세브란스에서 횡문근육종을 진단받게 되었고 바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뒤 소아혈액종양과로 전과되어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암이라는 질병을 알게 되고 나니 이게 다른 질병과는 달리 수술만 한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랄지도 모르는 암을 없애는 방사선과 항암치료의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정말 고된 과정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전과되어 1차 항암까지의 시간은 총 37일이 걸렸습니다. 항암과 동시에 30회의 방사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집이 있는 분당과 신촌을 매일 같은 시간에 외래로 다닌다는 것은 사실 고된 치료과정과 더불어 걱정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병원까지 오려면 3~4시간을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예은이는 그전부터 앓고 있던 뇌색마비장애로 인해 차를 타면 멀미를 해서 정작 중요한 방사선치료를 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빛하우스를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한빛하우스는 20년이 넘게 소아암 환자들이 이용하는 쉼터였는데, 마침 2025년에 리모델링 후 12월 재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은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우리는 하우스를 운영하는 소아암NGO한빛의 배려로 오픈보다 일찍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던 덕분에 무사히 방사선 치료 30회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매주 항암치료를 위해 외래와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항구토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되는 예은이의 구토와 오한으로 “아 안되겠다. 예은이가 이렇게 힘든데 오고 가는 수고라도 덜어 주어야겠다.”라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치료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한빛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우스에는 세제부터 휴지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아마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예은이가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한빛하우스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딱 알맞은 곳이기에 이곳이 예비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왜 또 이런 시련이 왔을까?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힘겹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한 한빛하우스라는 이곳을 예비해주신 것 같아 작은 위로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표준치료를 마치면 한여름을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예은이의 삶에서 우리가 한빛하우스에서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회상하며 이야기 할 때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암이라는게 정말 두렵고 아찔한 질병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그 과정에 힘이 되어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심에 힘든 과정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인이야기

한혜리 간호사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



희망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암센터 외래 간호사 한혜리입니다.
저는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는 아이들, 치료 중인 아이들, 그리고 치료를 마친 환자와 보호자들을 매일 만나며 진단에서 치료 과정을 거쳐 치료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암센터'라는 이름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힘든 병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긴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웃음과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 의료진과 더불어 부모님이 가정에서도 24시간 환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 있고, 아이들이 치료 중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병원 학교와, 따듯한 위로를 전해줄 미술치료, 음악치료, 완화의료 선생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여정 속에서 중간중간 쉼과 용기을 드릴 수 있도록 운동회와 여름캠프, 완치자와의 만남, 송년행사 등을 기획하고 지원해주시는 소아암NGO한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는 외래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치료와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응급실과 외래를 오가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지금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때로는 쉬어가고 다시 걸음을 이어가다 보면 이 길도 반드시 끝에 닿게 될 것입니다.

//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다고 말씀하시던 부모님들이 어느덧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약 이름과 검사 수치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며 의료진과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밝은 얼굴로 정기검진을 위해 찾아오는 모습도요.
언젠가는 지금 치료 중인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치료'라는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이야기
이진 미술치료사
(소아암NGO한빛 미술치료사)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고,
가족의 마음을 돌보는
미술치료

+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시간

소아암NGO한빛에서는 2024년부터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암병원에서 소아청소년암을 치료 중인 환자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시작된 미술치료는 2025년부터 보호자분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암 진단은 아이와 가족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자는 낯선 치료 환경과 신체적 불편감,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달라진 가족 분위기와 부모의 돌봄 변화 속에서 외로움, 서운함,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역시 치료와 돌봄을 이어가며 걱정과 책임감, 미안함과 지친 마음이 겹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한 말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가족을 걱정시킬까 봐 마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미술치료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그림, 색, 만들기 활동을 통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 안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이해해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치료 중 느꼈던 불안과 긴장을 조금씩 표현하고 정리하며, 형제자매는 자신의 마음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보호자는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아이와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 작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더 잘 돌보고 싶을 때, 형제자매의 마음을 살피고 싶을 때,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생긴 크고 작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미술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꼭 특별한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나야만 미술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가족의 변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거나,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에도 미술치료 안에서 천천히 표현하고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미술치료는 마음을 서둘러 바꾸거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금씩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표현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가족의 관심과 지지는 그 과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아암NGO한빛 미술치료는 환자와 형제자매, 보호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시간을 함께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이 되고자 합니다. 각 가족이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며, 치료과정 속에서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
각 가족이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며,
치료과정 속에서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치료비이야기

허유주환자 어머니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가온 손길

2025년은 우리 가족에게 제일 힘든시기였습니다.
2022년에 처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힘든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이라는 큰 수술도 받게 되었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식 거부 반응으로 고생하다가 생사의 고비를 두번이나 넘겼지만 마지막까지 치료가 안되어서 아이는 중환자실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유주는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자기 폐로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 연명치료를 위해서는 기계로 숨을 쉬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쉼을 쉴 수 있는 방법은 에크모라는 기계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기계로도 아이는 고작 3개월정도만 살수있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하늘이 노랗고 심장이 떨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 이식만이 답인데 어린이들의 장기이식은 어른들보다 훨씬 적게 진행되는 것을 알기에 절망스러웠지만 혹시 모를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달이라는 힘든시간을 피 말리는 고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엄마로서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셨고, 병원의 선생님들도 저를 만날때마다 토닥이며 위로해주셔서 힘겹게 그 시간들을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던 어느 날 흉부외과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식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수술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신께 감사인사를 수천번 외쳤습니다.
기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수술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수술실 문밖에서 그 긴시간 동안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며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우리 유주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저기 힘든 수술의 흔적이 보이는 모습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적같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는 가래빼는 방법, 소독하는 방법, 응급처치, 기계작동 방법 등 많은걸 배워나갔습니다. 힘든 수술과 복잡했던 교육을 다 받고 퇴원했지만 아이의 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모품구입비가 상상보다 많았습니다.

//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셨고,
병원의 선생님들도 저를
만날때마다 토닥이며 위로해주셔서
힘겹게 그 시간들을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
**정말 필요한 순간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
후원해주신 소아암NGO한빛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숨쉴 수 있게 된
우리 유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석션카테터, 각종 소독약품, 목필터, 위루관 연결줄 등 유주의 숨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소아암NGO한빛으로부터 아이의 소모품비용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유주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 후원해주신 소아암NGO한빛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숨쉴 수 있게 된 우리 유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부모님들 모두 힘들때 절망하지 마세요. 저희곁엔 항상 좋은 분들이 많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라며,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2025 한빛 NEWS



1. 2025 제5회 최고의 런치

1/23(목)에 청담동에 위치한 더클래스청담에서 소아암가족 31가족을 포함하여 총 110명이 모여 케이크꾸미기, 점심뷔페, 행운권추첨 등의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완치자와의 만남

2/15(토)에 서울에 위치한 달개비에서 32명(소아암가족 7가족 15명 포함)이 함께 모여 기린아꿈드림 활동 소개, 의료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제5회 2025 알록달록 그림 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

4월 한달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우리들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소아암환자들의 그림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을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2026다이어리로 제작하였습니다.



4. 2025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

5/10(토)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4층 대체육관에서 총 145명(소아암가족 27가족 96명 포함)이 모여 게임, 에어바운스놀이, 다과, 행운권추첨 등을 진행하며 신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5. 한빛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6월에 시작된 한빛하우스 전층 리모델링공사가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1층 사무실, 2층 원룸(3룸), 3층 주방확장, 옥탑 생활공간, 외벽 및 계단 등 공사를 진행하여 더 완벽한 하우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6. 해피빈재단 연계 고나리자(with 강지영아나운서) 유튜브 촬영

6/27(금)에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한빛하우스를 방문하여 해피빈재단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배분기관으로서의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7.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MOU 체결

7/1(화)에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향후 문화활동 관련 소아암가족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8. 2025 두 번째 완치자와의 만남

7/19(토)에 힐하우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43명(소아암가족 10가족 20명, 완치자, 의료진 포함)이 모여 완치이후의 희망적인 삶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소아암환아 그림 전시회

7/29(화)~8/24(일)까지 MOU를 맺었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그림페스티벌을 통해 공모된 소아암환자의 참가작품 15점이 1층 전시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10. 제26회 2025 소아암가족 힐링캠프 “신나게 원픽”

8/23(토)~8/25(월) 2박 3일간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에서 신원의료재단의 후원으로 총 110명(소아암가족 23가족 포함)이 조별게임, 물놀이, 의료진과의 대화, 연령별 프로그램, 장기자랑 등을 통해 신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 및 멘토멘티 캠프

10/18(토)~10/9(일)에는 강원도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에서 전 객실제공 및 500만원의 후원금으로 캠프에 도움을 주어 총 32명(환자, 완치자, 형제자매, 의료진, NGO스텝)이 함께 모여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멘토멘티 캠프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12. 한빛하우스 오픈식

11/29(토)에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한빛하우스가 공사완료 후 소아암가족들에게 문을 열기 위한 오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축사, 한빛하우스 21년 돌아보기, 컷팅식을 통해 새롭게 오픈한 한빛하우스를 축하하였습니다.

청아장학재단

13. 청아장학재단 소아암환자 장학금 지원사업 진행

청아장학재단에서 소아암환자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지원사업 진행하여 대학생 7명(일시금지원), 고등학생 4명(12개월 지원)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4. 예림디자인고등학교 굿즈 전달식

12/10(수)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예림디자인고등학교 5층 도서관에서 오랜시간 땀과 열정으로 재능기부를 진행한 예림고 학생들과 NGO에서 함께 제작한 굿즈(2026 다이어리)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5. 2025 소아암NGO한빛 송년잔치

12/18(목)에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150여명이 모여 한해동안에도 열심히 치료에 임했던 소아암환자들과 가족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피아노연주, 샌드아트, 서커스퍼포먼스, 행운권추첨 등을 통해 송년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 후원 NEWS

1. 대흥설비㈜ 설날 및 추석선물 국거리세트 각 50상자 후원

대흥설비주식회사의 이기조 대표님께서 올해에도 설명절을 맞아 1/20(월)과 추석명절을 앞둔 9/30(화)에 한상가득 선물세트(국거리 6종세트) 각 50box를 후원하여 병원과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는 소아암가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세브란스신협 후원물품 전달

세브란스 신협에서는 매년 설명절과 추석명절을 맞아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주셨는데, 올해에도 1/21(화)과 9/29(월)에 선물세트, 냄비, 반찬통세트 등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3. 하늘빛교회 한빛사랑하우스 후원금 전달식

1/23(목)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늘빛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인 이해인작가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한 기금 4,750,000원을 소아암환자를 위해 후원해 주었습니다.



4. 한국소아암재단 후원물품 전달

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2/13(월)을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2025년 한해동안에도 계속해서 생필품, 장난감 등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5. 연세의료원 2024년 교직원 성탄축하예배 헌금전달식

2/5(수)에는 은명대강당(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에서 진행된 교직원 수요예배때 2024년 12월 교직원 성탄축하예배 헌금 2,000,000원을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후원해 주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6. 본아이에프㈜ 상품권 후원을 위한 후원금 지원

본아이에프에서는 소아암가족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2/7(금)에 본상품권 구입을 위한 지정 후원금 3,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구입한 본상품권은 소아암가족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신원의료재단 소아암가족을 위한 특별후원금 전달

2/28(금)에 신원의료재단에서 소아암가족을 위해 50,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올해 여름캠프를 위해 사용되어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SHINWON MEDICAL FOUNDATION

8. 라잇나우쇼(동기부여&라면나눔캠페인) 라면 후원물품 전달

3/28(금)에는 아쿠아픽 20층 코이노니아홀(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진행된 라잇나우쇼에 초청받아 육개장 컵라면 1004개를 후원받았습니다.



9. 구르메레브쿠헨 바자회 수익금 후원

4/27(일)에 연희동에 위치한 요리교실 구르메레브쿠헨에서 일본인 가정식요리 전문가인 나카가와 히데코씨와 수강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1,718,792원을 소아암환자를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10. 매월 엘가닉제품 후원 및 운동회, 송년잔치 비누 150개씩 후원

엘가닉에서는 매달마다 여러 제품을 골고루 담아 한빛하우스에 후원물품을 보내주고 있고, 5/10(토)에 진행된 소아암가족 운동회와 12/18(목)에 진행된 송년잔치에 엘가닉 캔비누 150개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11. 도런도런 운동회, 송년잔치 후원물품 전달식

5/10(토)에 진행된 소아암가족 운동회에서 직접 만든 선물세트와 12/18(목)에 진행된 송년잔치에서는 1,364,321원의 후원금을 전달해주셨고, 후원금으로 (파수)보온주머니를 구입하여 소아암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2. 대우건설 2025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 후원전달식

5/21(수)과 11/18(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우건설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기부단체 선정 투표에서 우리 단체가 선정되어 각 5,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13. 100주년기념교회 후원 예비기관 기관답사

5/27(화)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100주년기념교회 구제봉사팀에서 한빛하우스를 방문하여 2년간 진행될 후원 예비기관의 기관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 결과 2025년 6월~2027년 2월까지 월 50만원 정기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4. 연대의대 봉사팀 의료키트 전달식

9/12(금)에 연세대 의대 봉사동아리에서 의료상식을 쉽게 전하기 위한 키트, 책자, 영상, 소품을 직접 제작하여 의료키트 45세트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15. 창천교회 소아암환자 치료비 후원금 전달식

10/29(수)에는 한빛하우스를 오랫동안 후원해주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창천교회 병원봉사회에서 소아암환자의 치료비를 위해 2,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16.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창립기념일 기념 후원금 전달식

12/11(목)에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한빛하우스에 방문하여 임직원분들이 직접 구입한 소아암환자 및 보호자의 선물을 전해주고, 6,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17. 박우람후원자 후원금 전달식

12/17(수)에 보컬스튜디오 대표인 박우람후원자님께서 연말을 맞아 소아암환자를 위한 치료비 500,000원과 지원 대상자를 위한 의류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18. 누르프렌즈 송년잔치 후원물품 전달

12/18(수)에 진행된 송년잔치에 누르프렌즈에서 직접 만든 봉제인형 오가닉 토리인형 70개를 후원해주어 송년잔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19. 양재동 천사유치원 2025 천사들의 나눔행사 후원금 전달식

12/23(화)에 천사유치원에서는 나눔행사를 통해 천사유치원 원생들 및 선생님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5,543,11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2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착한(권용식, 진은정 후원자) 치료비후원금 전달식

12/24(수)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착한의 권용식 대표님과 진은정 후원자님께서 소아암환자 치료비지원을 위한 10,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21. 이은경이사 한빛드림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후원

12/30(화)에 소아암NGO한빛 이은경 이사님께서 한빛드림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후원금 100,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22. EY한영 임직원 후원금 전달

12/31(수)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EY한영 62명의 임직원분들이 연말을 맞아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후원금 15,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23. 유튜브 매불쇼 생방송 후원금 전달식

12/26(금)에 해피빈재단을 통해 유튜브 매불쇼 시청자 후원금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유튜브 생방송에 참석하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161,850,200원을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1. 2025년 결산서

(2025.01.01~2025.12.31)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후원금 수입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1) 정기후원		1) 인건비	
1-1) CMS후원	75,591,615	1-1) 급여 및 수당	63,720,860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24,560,000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9,200,000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5,600,000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세금	12,513,230
2-1) 정기후원 소계	**105,751,615**	**1-1) 인건비 소계**	**85,434,090**
2) 특별후원		2) 운영비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37,636,279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2,955,930
2-2) 해피빈	54,916,900	2-2) 소모품비	17,431,902
2-2) 특별후원 소계	**92,553,179**	2-3) 여비교통비	431,200
3) 지정후원		2-4) 수용비 및 수수료(우편,택배,주차 등)	1,082,420
3-1) 치료비지원	10,500,000	2-5) 예비비	0
3-2) 미술치료	1,260,000	2-6) 회의비	4,476,780
3-3) 건축발전	100,000,000	2-7) 기타 운영비	3,838,430
3-4) 경기사회복지모금회	45,000,000	**1-2) 운영비 소계**	**30,216,662**
2-3) 지정후원 소계	**156,760,000**	1-3) 홍보	**6,362,530**
4) 비지정후원(개인)		1-4) 후원 개발 및 관리	**4,695,490**
4-1) 비지정 개인후원	73,379,713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126,708,772**
4-2) 비지정 단체후원(기업,재단)	83,887,249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쉼터)	
2-4) 비지정후원(개인) 소계	**157,266,962**	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후원금 소계	**512,331,756**	1-1) 식자재 구입	7,668,344
2. 자산 매도금액		1-2) 소모품비	20,031,964
1) 금융자산매도	0	1-3) 정수기렌탈요금	836,400
2) 유형자산매도	0	1-4) 가스요금	5,364,500
금융자산 매도 소계	**0**	1-5) 방역요금	1,216,000
3. 잡수입		1-6) 전기요금	3,438,120
1) 이자수입	14,208,178	1-7) 수도요금	984,600
2) 기타잡수입	497,020	1-8) 인터넷 및 TV요금	2,023,616
잡수입 소계	**14,705,198**	1-9) 시설개보수비	299,602,065
세입합계	**527,036,954**	1-10) 재산세	11,748,723
		2-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소계	**352,914,332**
		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2-1) 식자재 구입	715,540
		2-2) 소모품비	3,135,760
		2-3) 정수기렌탈요금	561,600
		2-4) 가스요금	3,361,720
		2-5) 방역요금	1,377,000
		2-6) 전기요금	3,621,650
		2-7) 수도요금	850,500
		2-8) 인터넷 및 TV요금	1,154,083
		2-9) 시설개보수비	2,785,000
		2-9) 재산세	2,807,334
		2-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소계	**20,370,187**
		3) 현대벤처빌 운영	
		3-1) 관리비	3,023,470
		3-2) 소모품비	59,740
		3-3) 가스요금	643,780
		3-4) 인터넷 및 TV요금	448,680
		3-5) 시설개보수 및 관리비	0
		3-6) 재산세(부동산세 등)	3,474,183
		2-3) 현대벤처빌 소계	**7,649,853**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380,934,372**
		3.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95,281,070**
		4. 자산구입금액	
		1) 금융자산매입	0
		2) 유형자산매입	0
		자산구입금액 소계	**0**
		5.소아암환자지원사업	
		1) 소아암가족지원사업	61,615,334
		2) 멘토링프로그램(기린아&꿈드림)	8,356,216
		3)미술치료프로그램	14,074,629
		소아암환자지원사업 소계	**84,046,179**
		6. 잡지출	620,000
		잡지출 소계	**620,000**
		세출합계	**687,590,393**
월(연) 자금수지(세입-세출)	**-160,553,439**		
전월(년)이월금	430,697,070		
차월(년)이월금	270,143,631		

2. 후원회원

(2025년 1월~12월)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박정순, 배정임, 이선희, 이희경, 조미영,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미, 김경민, 김두진, 김병천, 김선정, 김소라, 김영숙, 김유민, 김은경, 김재훈, 김종수, 김지선, 김진소, 김진아, 김현이, 김현정, 김혜연엄마, 김희진, 나수연, 도현순, 모명환, 모민희, 박선정, 박영란, 박은선, 박은재, 박정선, 박현준,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석미영, 성정숙, 손유진, 송기원, 신재영, 안상민, 안혜주, 양재승, 오미영,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윤성현, 이감우(이종엽), 이규현, 이다영, 이명자, 이영혁, 이은우(이종엽), 이은정, 이인숙, 이주현, 인수진, 장수연, 장유현, 정규성, 정미혜, 정서윤, 정행훈, 조미영, 조형희, 지승연, 최병숙, 최상민, 허수정, 현승준, 황인희, 황정원				
2만원	강동현, 강유미, 권대용, 권민수, 권순호, 김규광, 김나원, 김라임, 김민정, 김선화, 김수헌, 김영자, 김예빈, 김예지나, 김재실, 김지영, 김진희, 김현숙,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유정, 노유원, 민주원, 박예진, 박은령,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박홍이, 배석진, 배준영, 서복례, 서정혁, 서현우, 석윤희, 성지혜, 신경민, 신윤정 , 신현주, 양혜란, 유경아, 유기옥, 윤이송, 윤정애, 이경자, 이명순, 이민영, 이배환, 이수정, 이영조, 이유미, 이윤선, 이지순, 이현빈, 이혜인, 임규찬, 임지선, 장미경, 장진희, 정대기, 정인호, 조달님, 진정문, 최승관, 최식환, 최영애 , 하미경, 한수영, 한윤혁, 한정화 , 한혜선, 현도윤, 홍관욱, 홍영숙, 황지율				
3만원	강민주, 강진희, 고경민, 구기선, 국아령, 김건이, 김광재(최은희), 김수연, 김주희, 김지원, 김지윤, 김채운, 김현진, 김형기(김예준), 김혜진, 김홍익, 박건희, 박승원, 박유선, 서명석, 신동성, 신형주, 심현정, 안욱진, 양기정, 유재덕, 이승순, 이은미, 이진희, 이채윤, 이철주, 장성필, 장현진, 정동화, 정수진, 정해순, 조희경, 주식회사 업짐, 주형준, 주혜연, 최병철, 최수영, 한상원, 홍순명				
5만원	㈜용천신일신성가스, 강창무, 권민지, 김예준(김명희), 김은아, 김지혜, 김형기(김예준), 김혜림, 나오미선교회, 박민지, 박상민(박세진), 송민정, 신희진, 윤지아, 이승현, 이효선, 창천교회 병원봉사회				
10만원	강명선, 고복희, 권승연, 권용식, 김선희, 김영준, 김윤아, 남연주, 문선미, 박홍식, 산돌교회, 안도형, 이승연, 이지은, 이지현, 장준영, 한승민				
20만원	김미영, 이지은, 정만희				
26만원	배길선	50만원	배명자, 100주년기념교회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1,000	박재준
2,000	민경재, 이준수
3,000	파이팅
4,000	김진우
5,000	캠페인후원금
9,000	손영길
10,000	김승희, 안수연, 이종은
15,000	홍영재
20,000	강나경, 강예준, 고은혜, 고정현, 김경민, 김로하, 김수호, 김유연, 김은우, 김제민, 김주희, 김진혁, 김효정, 남궁송이, 남궁아온, 마영주, 문준기, 박승한, 박연호, 박이준, 박준우, 박준호, 박하음, 배준영, 송민정, 오은찬, 유세헌, 윤승호, 이경자, 이솔, 이윤우, 장현지, 정가온, 정재희, 정제나, 정지아, 제예진, 최순미
25,000	연세대학교의과
30,000	김성효, 김정희
35,000	이예림
40,000	남지은
45,000	홍진우
50,000	남윤성, 모민희, 양신영, 윤찬빈
52,400	이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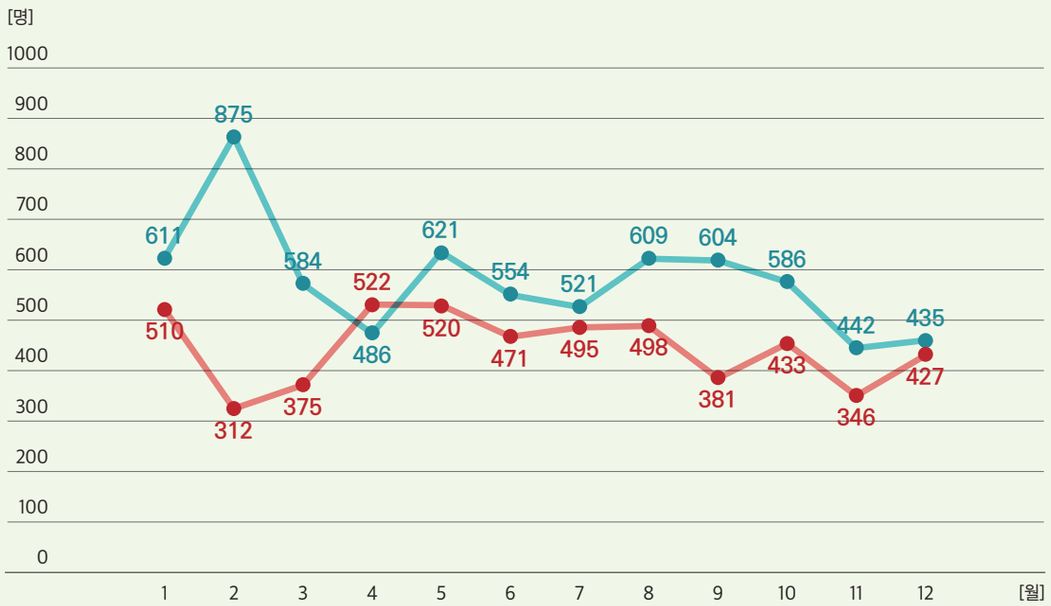
금액	후원자명
70,000	김지민, 이영빈
80,000	한승혁
90,000	김미숙
100,000	권가은, 김성하, 김수진 (천사유치원), 김현진, 문지혁, 송민선, 예수님의 사랑이 어, 오젬마, 이다근, 이조아, 조성민, 조윤관, 한태범, 황지율, 황한별
105,000	오승환
120,000	김서연(삼송진참치), 송영진, 신혜경, 이은찬, 장시온, 전선유
125,000	김혜진
140,000	오태민
142,000	박세연
200,000	박유진(송민선), 메디컬애비뉴
215,000	이지원
240,000	김수경2, 은종선
300,000	김경희, 김상귀, 박미옥, 이영주(이유담)
340,000	임재순
360,000	이정원
460,000	서한별
500,000	강민주, 만남과동행, 박우람
503,090	이세령
535,000	반종현

금액	후원자명
600,000	정윤환
1,000,000	김진소, 대한기계설비협회, 박수영, 설비협회광주전남, 송요철, 유혜진, 이규현, 체인박물관
1,020,000	김경흠
1,676,570	도런도런
1,718,792	구르메레브쿠헨
2,000,000	김현이, 장준영, YFLC
2,600,000	이배영
2,625,000	㈜호반건설
3,000,000	본아이에프㈜, 창천교회병원봉사회
3,520,000	김지안(라파엘교육)
4,750,000	하늘빛교회 & 이해인작가
5,000,000	전수정
5,543,110	천사유치원
5,950,000	연세대학교 의료원
6,000,000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10,000,000	㈜대우건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착한, 민경애
15,000,000	EY한영
50,000,000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100,000,000	이은경

3.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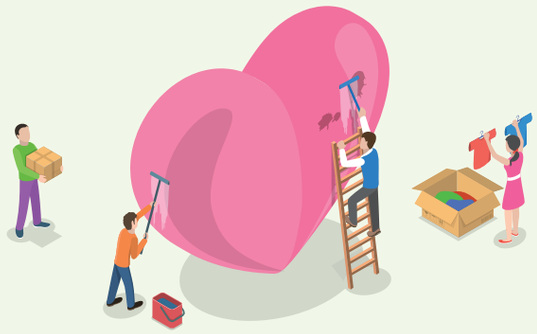
1. 2025년 이용현황 (1월~12월)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① 이용현황표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환자	238	124	143	216	187	170	183	179	125	132	142	165	2,004
보호자	272	188	232	306	333	301	312	319	256	301	204	262	3,286
합계	510	312	375	522	520	471	495	498	381	433	346	427	5,290





2. 2025년 후원물품내역

1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휴지, 레고, 휴지통, 등), 엘가닉(캔가글 등 50개) 대흥설비㈜(한상가득 선물세트 50box), 신협(흑돈본가, 벤하임 멀티 에어 스타일러 등 28종)
2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휴지, 곽티슈, 털목돌이, 코팅컴퓨터 등 / 도서 111권) 엘가닉(캔치약 등 46개)
3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휴지, 기저귀, 물티슈, 보냉백 등), 한국환경기술사회(쌀 60kg), 엘가닉(캔클렌징 등 39개)
4월	소아암재단(쌀40kg), 라잇나우쇼 컵라면 1004개, 엘가닉(캔치약 등 35개)
5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 휴지, 냄비, 메디록스, 키친타올 등), 한국환경기술사회(쌀 90kg), 도런도런(어린이날 문구세트 60box, 카피바라인형 60개), 엘가닉(캔선크림 등 36개)
6월	소아암재단(쌀40kg, 5box/휴지, 키친타올, 여행용버너, 헬로카봇 등), 엘가닉(캔클렌징폼 등 36개)
7월	소아암재단(쌀40kg), 코코스타(핸드크림+풋크림세트 15box), 엘가닉(캔바디클렌저 등 43개)
8월	소아암재단(쌀40kg), 한국환경기술사회(캐리어 11개, 미니가방 13개, 과자류 10box), 고정현(패션후르츠 2box), 김성현(쌀 20kg), 엘가닉(캔트리트먼트 등 51개), 스프링샤인(메모리게임 60개)
9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메디록스, 휴지, 곽티슈, 쇼핑카트), 신협(캐리어수레 등 30개), 대흥설비㈜(한상가득 선물세트 50box), 김서율 어머니(식기살균기 3대, 전자렌지 3대), 엘가닉(캔엔젤 등 총 35개)
10월	소아암재단(쌀40kg), 김혜연(쌀 40kg), 엘가닉(캔치약 등 총 26개)
11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휴지,메디록스,곽티슈,장보기카트 등), 엘가닉(캔퓨리닥터 등 34개)
12월	소아암재단(쌀40kg), 엘가닉(캔비누 150개, 캔크림 등 28개), 현승윤(귤 2box), 누르프렌즈(오가닉 토리인형 70개), 도런도런(보온주머니 80개)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1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정기 일시 후원 신청



절취선

굿모닝 썬샤인 프렌즈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 개인 ☐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 100,000원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기타( )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 5일 ☐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요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내 생애 두 번째, 눈오는 날”



(2025 제5회 그림페스티벌 초등저학년부 최고상 수상작)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따뜻한 편이라서 눈이 거의 오지 않아요.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서울에서 눈오는 것을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보았는데
너무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엄마랑 눈사람도 만들고 너무 신나서 뛰어놀았어요.
건강이 좋아지고 매일매일 눈이 펑펑온다면, 눈 속에 파묻혀서 노는 상상도 해보았어요.
눈이 펑펑 내리면,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들과 함께 같이 뛰어놀고 싶어요!